

CJ, 세계 라이신·핵산 시장 재패

핵산은 Ajinomoto 제치고 1위 ... 그린바이오 수익비중 40%로 확대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으로 세계 시장을 제패해 2013년까지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는 9월18일 중국 Liaocheng 소재 라이신(Lysine)·핵산(Nucleic Acid)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제일제당이 더 이상 설탕·밀가루 제조기업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2013년은 CJ제일제당이 설립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4년 후인 2013년에는 2009년의 예상실적인 매출 5조 9000억원의 2배, 영업이익 예상치인 3000억원의 3배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2005년에 2013년의 목표를 세웠는데, 국내 식품시장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글로벌시장과 BT(Bio Technology)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Green Biotech)로 레드바이오(Red Biotech)로 불리는 제약사업, 화이트바이오(White Biotech)로 불리는 화학 대체연료사업과 달리 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식품첨가제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최근 식량 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분야로 CJ제일제당이 생산하고 있는 핵산(식품첨가제), 라이신(사료첨가제) 등이 이에 속한다.

특히, 라이신은 가축을 성장시키고 육질을 개선하는 등 사료의 효율을 높여주는 필수아미노산 성분으로, 세계적으로 연간 2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인디아 등의 육류 소비가 급증하면서 연평균 8%의 신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현재 라이신 시장에서 일본의 Ajinomoto, 중국의 GBT와 각각 20-22%의 비슷한 점유율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식품첨가제 소재인 핵산은 세계시장 5억달러 가운데 CJ의 시장점유율이 38%로 Ajinomoto(31%)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J는 해외공장을 기반으로 그린 바이오 분야에서 매출 2조원을 올려 2013년에는 가공식품(3조2000억원)과 소재 식품(2조2000억원), 사료(2조4000억원) 분야에서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고, 바이오 분야의 영업이익 4000억원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형 사업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1>